

살길 찾는 중소증권사, 돈 되면 다 한다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발표
특화전략 성공시 수익성 개선
“대형사와 양극화 심해질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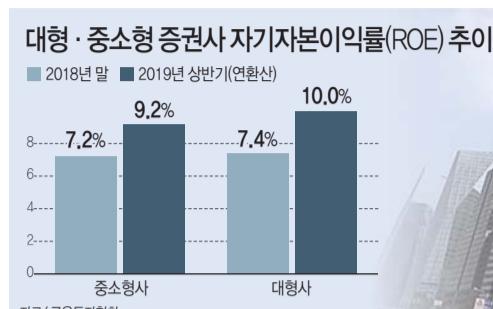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으로 변환점을 맞은 중소형 증권사가 살길 찾기에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신규증권사에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등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와 이를 계기로 중소형 증권사가 특화전략에 성공한다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왔다.

◆ 중소형 증권사, 특화전략은?

생존경쟁에 위기감을 느낀 중소형증권사는 뚜렷한 방향성 찾기에 나섰



다. 다양한 시도를 반복하며 새로운 수익률을 찾아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8월 신탁업 인가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인형 퇴직연금(IPR) 사업에 뛰어 들었다.

한국포스증권이 선발주자인 대형 증권사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내세운 전략은 낮은 수수료율이다. 한국포스증권 관계자는 “아직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IPR뿐 아니라 펀드 등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 수수료 할인을 검토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KR투자증권도 채무증권 관련 투자 매매업과 투자증개업 관련 추가 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KR투자증권은

선물사로 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IB(투자은행) 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권 투자매매업과 장내파생상품 투자증개업과 라이선스를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특화된 장점을 투자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DS투자증권도 부랴부랴 후발주자로 나섰다. 지난달 23일 증권을 업무 단위에 추가해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서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토러스투자

증권이 지난해 11월 부동산개발업체 D 네트워크에 인수되며 사명을 바꿨다.

◆ 전문가 “틈새시장 노려야”

부정적 전망도 있다. 중소형사와 대형사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대부분 증권사가 IB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소매금융의 존도가 높은 중소형 증권사로선 영업 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증권사가 살아남기 위해 혁신 특화된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이 오히려 대형 증권사만 육성시키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가체계가 개편되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가 자유롭게 이뤄져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양극화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송태화 수습기자 alvin@metroseoul.co.kr

유안타증권 디아제스트



유안타증권

퇴직연금고객 연2.66% 예금

유안타증권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고 연 2.66%(세전) 폐퍼저 측은행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PR) 등의 유형이 있다. 유안타증권 퇴직연금전용 폐퍼저 측은행 정기예금은 DB형, DC형, IPR형에 가입한 퇴직연금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손엄지 기자

VFX기업, 할리우드 진출 기대감

.Block 株라큘라의 종목

넥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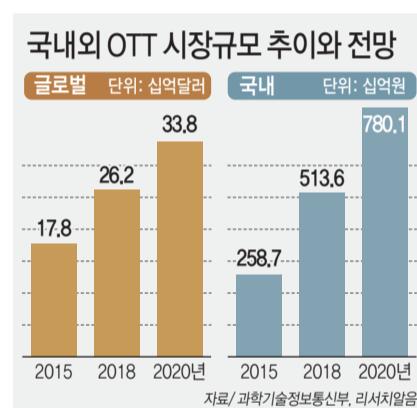
넥스터피쳐스 자회사 설립·영역 확장 개봉 앞둔 ‘백두산’ 흥행시 추가 수혜

“넥스터는 지난해 영화제작사 넥스터피쳐스를 설립해 영화제작 전반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됐다. 특히 회사의 주력 사업 영역인 VFX 시장은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업체들의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덕분이다.

최 연구원은 “최근 국내 드라마 시장에서는 VFX 가 필요한 SF, 판타지 소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드라마 제작에 적용되는 VFX 작업은 영화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도깨비, 미스터션샤인, 아스달연대기 등에 모두 VFX 기술이 적용됐다.

최근 5G 통신 상용화로 가상현실(A R) 부문에서도 VFX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릭슨모빌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5G 서비스가ip



자는 19억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고화질의 대용량 영상 수요가 늘면서 최근 이통사·게임사 등은 5G 기반의 영상 콘텐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VFX 1위 업체인 넥스터와의 협업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최 연구원은 전했다.

연말 개봉을 앞둔 ‘백두산’의 흥행 시 추가 수혜가 예상된다. 백두산은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 주연의 재난영화로 넥스터가 100% 자체 제작한 첫번째 영화다. 최 연구원은 “총 260억원의 제

작비가 소요된 백두산의 예상 손익분기점(BEP) 관객수는 대략 680만명이다”면서 “백두산이 1000만 관객 달성이 텁스터의 수익은 8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CJ ENM과의 전략적 제휴도 긍정적인 이슈다. 최 연구원은 “넥스터는 지난 4월 공시를 통해 CJ ENM과의 인수합병설을 부인했지만 향후 재무적 투자 및 업무적 협력 등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리서치일음은 넥스터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의견과 함께 적정주가 9500 원을 제시했다. 2020년 기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85억원, 96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135.1% 증가, 고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해서다.

최 연구원은 “대형 드라마 추가 수주와 중국영 신규 VR 테마파크 사업 참여, CJ ENM과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투자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어 우상향의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하나금융투자

“계좌개설하면 치킨드려요”

하나금융투자는 오는 13일까지 ‘60계 치킨’과 ‘원큐딜 이벤트’를 진행한다. ‘원큐딜 이벤트’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 손님에게 무료 치킨 교환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계좌를 개설하고 10월과 11월에 국내 주식을 거래하면 매달 치즈볼 교환권도 한 장씩 추가로 준다. 이벤트는 하나금융그룹의 토탈 금융 플랫폼인 ‘하나멤버스’에서 선착순 4000명 대상으로 진행한다. ‘하나멤버스’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벤트에 참가신청을 하면 치킨 교환권이 일정 문자(SMS)로 발송되며, 문자를 받고 1달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손엄지 기자

“전월세 4년 연장? 영향없다”

단기 거주자 많은 대학가·오피스텔 규제 사정권 밖, 계약 갱신 드물 듯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제재 불만

현행 2년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을 더 연장해 주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대학가와 오피스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대학가 인근에 자리 잡은 ‘원룸촌’은 규제의 사정권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대학생 수요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단기 거주자들이 많다. 계약갱신 요구가 드물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전세 가가 오를 여지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임대차인에게만 의미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학, 군대 등 여리 변수가 많아 1~2년 동안 짧게 거주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선 전·월세가가 급등할 가능성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가 제대로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며 “기본 계약을 4년으로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단기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이 현실성을 반영할 것이다. 가격

은 단시간에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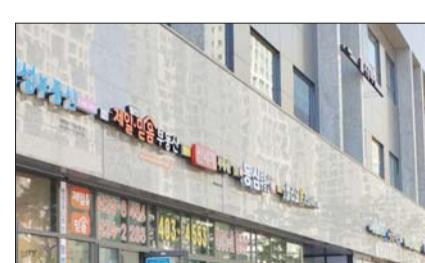
직장인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 단지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강남역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직장인이 자리를 옮겨 다닌다”며 “회사 인근 오피스텔 또한 단기 수요자들이 많아 정책 규제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오피스텔은 특히 수요·공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역인지에 따라 규제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는 확실한 규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대단지 인근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도 수익을 내기 위해 하는 것



서울 시내의 한 대단지아파트 내 부동산중개업소.

/김상길 수습기자

이라며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가 수입원인데 이를 제재하는 행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4년 계약을 하거나 4년 후에 급격하게 옮리거나 돌중 하나다. 전세가는 오른다”며 “지금도 4년 계약 전세에 대한 임대인 문의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김상길 수습기자 sayk6110@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전용 ELB상품

미래에셋대우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새로운 구조의 원금지급 형 퇴직연금 전용 ELB 상품(저위험)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정해진 구간 ELB’는 KOSPI200 지수의 상승·하락 방향성을 맞추지 않아도 사전에 정해진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상품이다. 매월 특정 조건 관찰일의 KOSPI200 지수 종가가 전월 관찰일 종가 대비 ±5%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매월 쿠폰을 적립해 만기에는 누적된 수익을 일시 지급한다. 특히 매월 5%의 정해진 구간을 결정하는 기준기가 새로 설정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따라 수익 구간을 변경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송태화 수습기자